韓國言論學報, 60(2) 2016.2. 61~94쪽 61

정치뉴스 프레임과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 과학기술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세월호참사 속 '다이빙벨' 투입에 관한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전창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는 정치뉴스 프레임이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뉴스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뉴스수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을지라도 사전에 노출된 정치뉴스의 프레임(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에 따라 다이빙벨 투입 기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실험연구방법을 채택했으며 실험 결과 연구자가 조작한 기사의 정치뉴스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는 과학기술 이슈인 다이빙벨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형성된 의견 또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주제를 제안했다.

핵심어: 뉴스 프레임, 해석적 프레임, 내러티브 해석모형, 세월호참사, 다이빙벨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인 전창영의 석사학위논문(2016)을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jcy6194@naver.com, 제 1저자
*** chunsik@hufs.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다이빙벨은 투입과정부터 자진철수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상영여부 등을 놓고 벌어진 갈등까지 정치적·이념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갈등적 이슈가 현실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적 이슈를 다룬 보도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언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준웅, 2001). 따라서 언론은 미디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사실성,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확인된 사실 정보의 전달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받는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갈등적 이슈와 관련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컨대 황우석 사태와 광우병 논쟁 등 과학기술이 건강, 환경, 윤리,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때 수용자는 시민과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인과과정이 갖는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과학지식의 한계 때문에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급박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많은 불확실을 내포한 채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박희제, 2011). 그렇다면 뉴스수용자는 갈등적 이슈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그럴듯한 해석을 어떻게 얻게 될까?

프레임 연구 혹은 프레이밍 효과연구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갈등적 이슈의 현실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뉴스 프레임 효과연구에 의하면 언론이 취한 입장과 이를 반영하는 보도양식에 따라 뉴스내용에 대한 시민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Price & Tewksbury, 1997). 또한 언론은 복잡한 현실을 뉴스로 전달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 뉴스의 전개방식을 상이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달라지기도 한다(Entman, 1993). 나아가 같은 사건 혹은 이슈라 할지라도 뉴스 프레임에 따라 그 관점과 논리 그리고 결과가 다르며 상이한 뉴스 프레임은 이를 접한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에도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Nelson & Oxley, 1999). 결국 프레임 연구는 뉴스의 내용 및 중요성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뉴스수용자의 의견형성에 보다 미묘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이준웅, 2001).

뉴스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뉴스 자체의 프레임효과가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수용자의 지식체계가 갖는 이야기적 속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지식이 이야기 구조를 지녔다는 것은 이미 폭 넓게 인정된다(Baumeister & Newman, 1994; Graesser & Ottati, 1995). 따라서 이 연구는 뉴스 스토리도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

지만 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뉴스수용자의 사회적 지식도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뉴스에 담겨있는 프레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가 1차 프레임 효과로 인해 특정 지식체계를 갖추었다면, 그 지식체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주제의 뉴스 보도를 수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 맥락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기존 프레임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시된 내러티브 해석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각각 다르게 프레이밍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는 정치 기사에 노출된 이후 과학기술 갈등 이슈인 '세월호참사 속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기사를 접했을 때, 서로 다른 프레임의 정치보도가 과학기술 이슈인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뉴스수용자의 기사에 대한 해석과 이슈에 대한 의견, 나아가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프레이밍과 여론변화

프레이밍 이론은 여론변화를 설명할 때 고전적 여론 모형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고전적 여론 모형은 여론을 둘러싼 사회세력 간의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교환으로 여론변화를 설명한다. 즉 고전적 여론 모형에 따르면 경쟁하는 사회적 세력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와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대중을 설득하며, 이러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집합적인 수준에서 찬성과 반대의 균형 상태에 이른 상태가 곧 여론의 현재적 상태다(Page & Shapiro, 1992).

고전적 여론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을 사회·정치적 여론과정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런데 고전적 여론형성 모형은 여론변화의 미묘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현실적인 여론형성과 변화의 메커니즘은 서로 상반된 사회적 세력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순효과(net effects)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이준웅, 2000). 예를 들어, 고전적 여론형성 및 변화 모형은 갈등적 이슈를 둘러싼 찬성·반대의 진영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려 하지만 왜 특정 입장의 이론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다이빙벨을 보도할 때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매체는 JTBC 한군데였지만 단기간에 대중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모멘텀을 받아 궁극적으로 여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전적 여론형성 모형은 복잡한 여론변화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프레이밍 이론은 무엇보다도 고전적 여론형성 및 변화 모형이 간과한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해석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프레이밍 이론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찬성 및 반대의 교차와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차이의 순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이준웅, 1997; Pan & Kosicki, 1993). 프레이밍 이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결국 이러한 해석적 수용에 따라 다수파의 설득적 메시지는 물론, 비록 소수파에 의한 단기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이밍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 매체는 복잡한 현실을 뉴스로 전달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적인 뉴스의 이야기 줄거리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단 뉴스 프레임의 차이를 만든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그리고 뉴스 프레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그 뉴스를 접하는 개인의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해석은 의견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매개적인 과정을 통해 뉴스 프레임이 여론의 향방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Nelson & Oxley, 1999).

결국 여론변화에 대한 프레이밍 이론은 여론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곧 언론의 프레임과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갈등적 사태의 원인과 구성인 그리고 갈등의 전개와 결과에 대한 함의 등을 제공하는 뉴스 프레임의 형성에 따라 개인의 해석적 프레임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이밍 이론은 여론변화를 설명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찬성과 반대의 교차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본다. 즉, 언론의 보도 방식을 통해서 구성되는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에 주목하고 이 해석적 프레임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이준웅, 2000; Nelson & Oxley, 1999; 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2)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

기존의 연구는 미디어가 제시하는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화된 인지체계, 즉 스키마를 가졌기 때문이다(Graber, 1988). 스키마는 개인의 사고 패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누락된 정보를 메워준다. 이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스키마, 개인의 해석틀을 수용자 프레임이라고 한다(Scheufele, 1999).

결국 프레이밍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 프레임 형성, 프레임 구축, 개인적 차원의 프레이밍 효과 등의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수 있다(Scheufele, 1999). 특별히 이준웅(2009)은 '프레이밍 구축'을 뉴스수용자가 텍스트에 대한 노출과 주목을 통해 미묘한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프레이밍을 뉴스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으로 본다면, 프레이밍 과정은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 인식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것이다.

문제는 뉴스에서 의도한 프레임과 수용자 해석적 프레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즉,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연결되느냐는 프레이밍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논의했듯 두 프레임 모두 통합적 성격을 갖는다. 뉴스에도 관련 사건의 주요 부분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통합적 프레임이 전면에 나타나고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선택과 배제를 통해 하나의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자의 인지구조 내 생각 가운데 뉴스 프레임과 관련성 높은 것이 해석에 동원돼 이들이 최종 수용자 프레임 형성에 미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언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보도하기 직전, 지배적인 정치적 이슈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도를 특정 프레임으로 조작한 다음 수용자에게 노출시킨다. 그 이후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보여주었을 때, 각자에게 주어졌던 프레임과 관련성 높은 해석이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제시된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 노출을 거쳐 특정한 해석적 프레임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풀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즉,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가 적용성이 높은, 다시 말하면 관련성이 높은 생각을 자신의 인지구조 속에서 찾아내 해석에 이용하고 그 결과 뉴스와 유사한 해석적 프레임을 갖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내러티브 해석모형

본 연구는 뉴스 프레이밍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뉴스의 구성방식과 뉴스 스토리가 갖는 이야기 구조, 즉 내러티브 속성과 현실 구성적인 특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의 특성은 내용적 특성도 아니고 강조된 구절이나 표현도 아닌 '이야기 줄거리가 구성되는 방식'이라는 갬슨과 모디글라이니(Gamson & Modigliani, 1987)의 주장과 뉴스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그 양식과 형식 그리고 내용전개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구조화된 담론이라는 반 다이크(van Dijk, 1988)의 주장을 수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뉴스 해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이해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의 성과(van Dijk & Kintsch, 1983)를 받아들인다. 이에 따르면 수용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주어진 텍스트의 명제적 메시지를 추출해서 수용자의 인지적 표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텍스트 수용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인 행위자, 배경, 행위방식, 목적, 결과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인지적 모형(cognitive models)을 구성한다. 수용자는 이러한 인지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정보는 새로 추가하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며 반복되는 정보는 일반화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추론된 정보로 채우면서 텍스트를 이해한다.

결국 뉴스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뉴스 자체의 내러티브적 속성이 통합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수용자의 지식체계의 이야기적 속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준웅, 2001). 인간의 지식체계는 이야기 구조로 되었고 대부분의 사회적 지식 역시 이야기 구조를 지녔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Baumeister & Newman, 1994; Graesser & Ottati, 1995).

사회적 지식이 이야기 구조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뉴스 해석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뉴스 스토리도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지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뉴스수용자의 사회적 지식도 이야기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야기 구조의 구성요소인 주제구조의 배열 및 결합, 즉 배경, 행위, 행위자, 행위방법, 목적동기, 결과 등이 서로 조응한다면 뉴스수용자는 어려움 없이 뉴스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뉴스의 이야기 구조와 수용자의 사회적 지식의 이야기 구조가 조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내용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식내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뉴스내용을 재해석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뉴스내용의 학습이냐 아니면 뉴스내용의 재해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뉴스수용자의 지식의 규모 또는 지식이 통합된 정도가 된다(Graber, 1988).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안으로 2014년 발생한 세월호참사 과정에서 전개된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싼 갈등적 상황과 세월호참사 직전의 주요 정치적 이슈였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선택했다. 다이빙벨은 단순한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지만 세월호참사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 전형적인 갈등적 사안이 되었다.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언론매체마다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스트레이트, 사설, 논평, 보도 등을 구성하는 스토리의 주제구조도 매우 달랐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다이빙벨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이빙벨이라는 사안 자체가 세월호참사와 관련지어 출발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문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다이빙벨이라는 갈등적 이슈가 세월호참사 수습에 관련된 거대담론의 일부로서 그와 관련된 이념적, 사회정치적 논쟁요소를 갖춘 동시에 과학기술 보도에 대한 함의를 갖는 복잡한 이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멧코와 밸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1997년 유럽의 국가정상회의와 관련한 신문과 방송의 뉴스 프레임 연구를 통해 밝혀낸 다섯 가지 프레임, 즉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중,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제외한 네 가지 프레임을 적용한다.

첫째, 책임 프레임(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해결책을 제공할 책임이 정부나 언론사 혹은 기자에게 있다는 방식으로 쟁점의 대상이 되는 이슈나 정책을 묘사하는 프레임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간첩조작논란이 발생한 데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프레이밍한다.

둘째,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은 미디어가 수용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간, 집단 간, 제도 간의 갈등과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제도 간, 제도와 개인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이슈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 집단을 조명하거나 정치를 경마경기처럼 중계보도하는 것은 뉴스 표현에서 발견되는 지배적 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이를 정치공세라며 비판하는 여당의 대립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조작한다.

셋째, 인간적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은 사건이나 쟁점 혹은 문제를 묘사할 때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자는 이슈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인간 사례나 어

떤 전형을 제공함으로써 기사에 "인간적 얼굴"(human face)을 덧씌운다. 이 연구에서는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개인적 이야기와 감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조작한다.

넷째,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은 이벤트, 문제, 이슈 등을 종교의 교리나 윤리 규정이라는 맥락에서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이 연구에서는 간첩조작 사건이 당사자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했다는 개인의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기사를 이용한다.

앞에서 제시한 뉴스 프레이밍 효과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가정과 이론적 명제를 바탕으로 언론의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보도에 나타난 주제구조로 파악된 프레임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도출해 보았다. 특별히 '과학기술 보도를 이해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레이밍 된 정치보도를 접한 뉴스수용자의 과학기술 기사 해석과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특히 뉴스 프레임이 뉴스의 '이야기적 속성'에 따라 구성되며 프레이밍 효과 또한 수용자 지식의 '이야기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프레이밍 효과의 내러티브 모형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 가설 1: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정치보도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 보도해석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 가설 1-1: '책임'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 논란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방식으로 다이빙벨 보도를 해석할 것이다.
  - 연구 가설 1-2: '갈등'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의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이빙벨 보도를 해석할 것이다.
  - 연구 가설 1-3: '인간적 흥미'로 프레이밍된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특정 개인(유가족, 이종인 대표 등)의 감정에 집중해서 다이빙벨 보도를 해석할 것이다.
  - 연구 가설 1-4: '도덕성'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 과정에서의 도덕적 ·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다이빙벨 보도를 해석할 것이다.

- 연구 가설 2: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정치보도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형성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 가설 2-1: '책임'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연구 가설 2-2: '갈등'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강조할 것이다.

- 연구 가설 2-3: '인간적 흥미'로 프레이밍된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형성할 것이다.
- 연구 가설 2-4: '도덕성'으로 프레이밍된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절차에 대해 도덕적이고 윤리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 연구 가설 3: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정치보도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 가설 3-1: '책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 연구 가설 3-2: '갈등'과 '도덕성' 프레임 정치보도에 노출된 뉴스수용자 집단은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가설설정의 근거는 위에서 제시한 '프레이밍 효과의 내러티브 해석모형'에 대한 가정과 이론적 명제로부터 도출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뉴스 이야기 줄거리, 즉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현실에 대한 상황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이빙벨 투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프레임의 주제구조와 일치하는 기사를 읽은 후 수용자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 상황모형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기사에 대한 해석은 계속되는 후속적 해석을 위해 동원되는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사건기사를 읽는 수용자는 상황모형에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듯 뉴스 프레임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기사를 해석하는 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다이빙벨 투입 자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가설설정과 연구 설계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연구는 프레이밍 효과가 뉴스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효과나 뉴스내용에 대한 신념의 변화로 발생하는 설득효과와는 다른 효과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 그 자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뉴스 프레임의 내러티브적 속성을 뉴스 내용으로부터 구분해서 전자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뉴스 프레임을 접한 뉴스수용자의 해석이나 의견의 형성 또는 변화가 진정 뉴스 프레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뉴스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험처치를 통해서 뉴스의 내용이 아닌 뉴스의 이야기 속성이 뉴스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리하는 것이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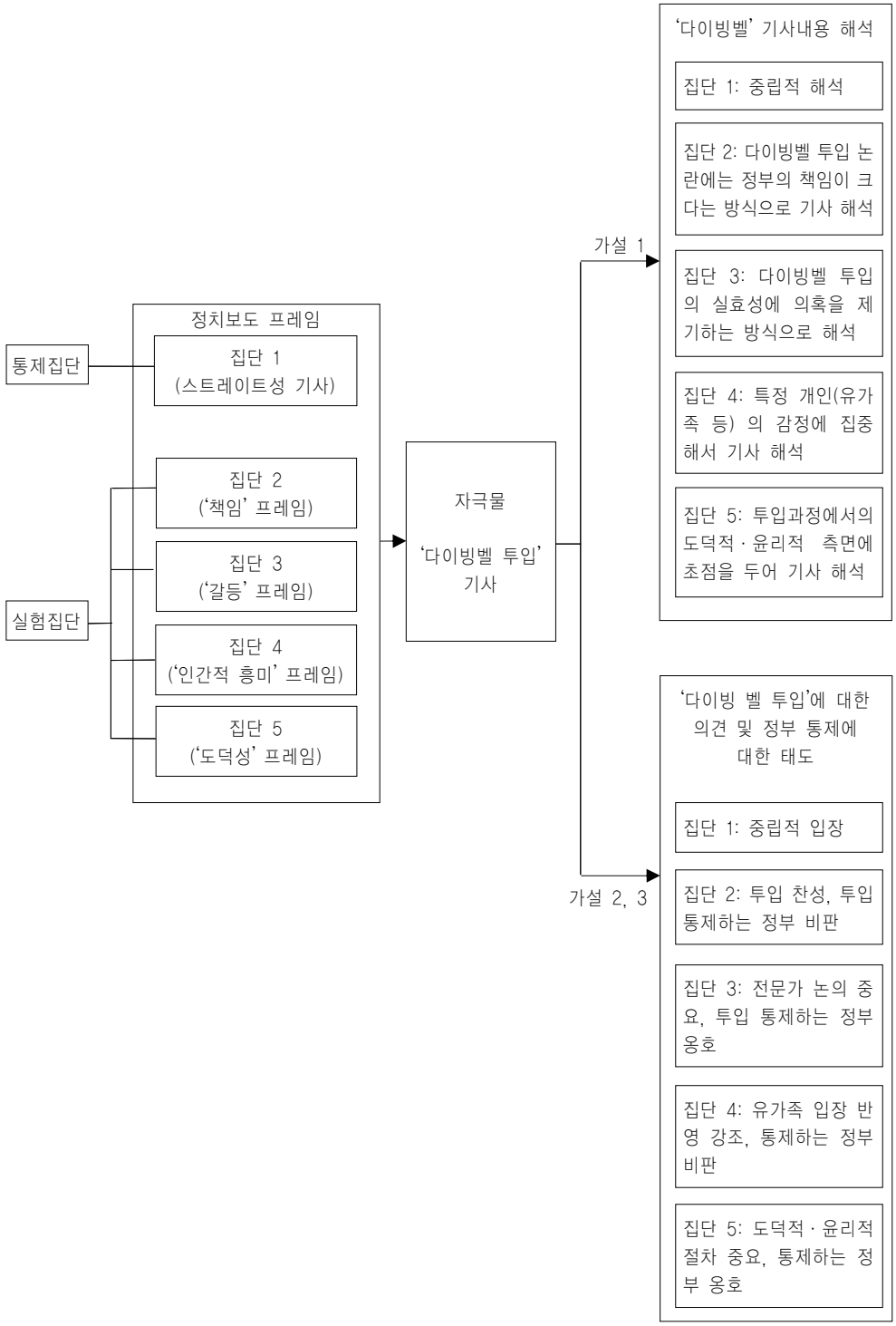
통제집단
실험집단
정치보도 프레임
집단 1
(스트레이트성 기사)
집단 2
('책임' 프레임)
집단 3
('갈등' 프레임)
집단 4
('인간적 흥미' 프레임)
집단 5
('도덕성' 프레임)
자극물
'다이빙벨 투입' 기사
가설 1
'다이빙벨' 기사내용 해석
집단 1: 중립적 해석
집단 2: 다이빙벨 투입 논란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방식으로 기사 해석
집단 3: 다이빙벨 투입의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석
집단 4: 특정 개인(유가족 등) 의 감정에 집중해서 기사 해석
집단 5: 투입과정에서의 도덕적 ·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기사 해석
가설 2, 3
'다이빙 벨 투입'에 대한 의견 및 정부 통제에 대한 태도
집단 1: 중립적 입장
집단 2: 투입 찬성, 투입 통제하는 정부 비판
집단 3: 전문가 논의 중요, 투입 통제하는 정부 옹호
집단 4: 유가족 입장 반영 강조, 통제하는 정부 비판
집단 5: 도덕적 · 윤리적 절차 중요, 통제하는 정부 옹호

그림 1. 실험설계모형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변화라는 독립변인의 실험처치를 뉴스의 내용이라는 중성자극과 구분해서 실시했다. 정치 일반에 대한 뉴스를 앞서 제시한 주제구조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책임', '갈등', '인간적 감정', '도덕성'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실험집단에 보여줬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뉴스 해석 및 의견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중성자극으로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스트레이트 뉴스'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험 조건이나 통제 조건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처치인 뉴스 프레임과 중성적 실험자극인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실험 참여자는 실험집단(4개의 프레임 조건)과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됐으며 어떤 집단에 배치되든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동일한 중성적 실험자극을 받고 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각기 다르게 제시된 실험처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이라는 정치이슈에 대해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등으로 프레임 된 뉴스기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중성적 실험자극(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험처치(뉴스 프레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덧붙여 다이빙벨 투입의 의견에 대한 영향력을 묻는 연구 가설 2와 정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 가설 3을 검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기사 해석과는 달리 뉴스수용자의 의견은 이 사안에 대한 뉴스수용자의 사전 지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내서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뉴스 프레임의 고유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연구 가설 2,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매체주목도,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 정치적 이념 그리고 특정신문 구독여부 등을 통제하며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4.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장실험 방법을 이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뉴스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이라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갈등이슈에 대해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현장실험 연구방안을 채택한 이유는 외생변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험결과의 외적타당도를 극대

표 1. 실험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학생 평균(n = 148)	여학생 평균(n = 159)	전체 평균(n = 307)
나이		22.5	20.8	21.7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5.1	4.3	4.7
	권위주의적 성격	3.9	2.7	3.3
정치정보 습득 (매체이용 빈도)	종이신문	2.1	1.5	1.8
	인터넷신문	4.1	4.3	4.2
	지상파뉴스	2.3	2.3	2.3
	종편뉴스	1.9	1.7	1.8
	보도전문채널	1.8	1.6	1.7
	정치대화	2.8	3.1	3.0

주: 정치성향; 가장 진보적(1점) ~ 가장 보수적(10점), 권위주의적 성격; 7점 만점, 매체이용; 7점 만점.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지 대학교에 재학 중인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07명의 설문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참가자 30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참조). 이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최소 = 18세, 최대 = 28세)로 남학생이 148명, 여학생이 159명이었다. 실험참가자의 정치적 가치관을 분석해보면, 정치성향은 10점 (보수적) 척도로 측정했을 때 남학생의 평균은 5.1점, 여학생의 평균은 4.3점이었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7점 척도로 5가지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남학생의 평균은 3.9점, 여학생의 평균은 2.7점이었다. 정치정보 습득 경로를 측정했더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종이신문, 종편뉴스,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한 비중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거나 가족 · 동료 · 친구와의 정치대화를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한 비중이 높았다.

실험은 통제된 다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실험자극물을 전달하기에 앞서, 응답자에게 실험의 목적을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에 충실히 응해줄 것을 부탁하고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때 응답자는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실험자극물, 즉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에 의해 구성된 신문기사를 읽도록 유도되었다. 실험자극물을 읽은 응답자는 자극평가(stimulus-evaluation),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해석,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의견 등과 관련된 문항에 답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적 가치관, 특정 신문 구독 여부 등과 관련된 변인도 함께 측정했다.

5. 연구결과

1) 조작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조작 검증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이 연구의 실험자극물 및 중성자극물이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극평가를 실시했다.[1] 실험처치가제대로 이루어졌다면 4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이해도, 흥미도, 중요도, 관심도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해도, 흥미도, 중요도,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95, .92, .91, .91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각 집단의 자극평가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이해도($F = .32$, $p = n.s.$), 흥미도($F = .65$, $p = n.s.$), 중요도($F = 3.01$, $p = n.s.$), 개인적인 관심도($F = .90$, $p = n.s.$) 등에서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표 3〉에서는 '다이빙벨'에 대한 이해도($F = 1.65$, $p = n.s.$), 흥미도($F = 1.10$, $p = n.s.$), 중요도($F = 2.52$, $p = n.s.$), 개인적인 관심도($F = 3.92$, $p = n.s.$) 등에서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뉴스 프레임 유형의 조작화 검증을 실시했다. 이는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등 4개 집단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점검으로서 실험자극에 포함된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문항을 통해 이뤄졌다.

기사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8개 문항을 사용했다.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해 수용자의 생각을 물은 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근거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진술문을 보면 ①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술문에 대한 평균점수를 구해 이를 '책임' 프레임의 점수로 규정했다. 전체적으로 '책임 프레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1) 이해도, 흥미도, 중요도, 관심도 등은 피험자 집단이 사전에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리고 기사에 대한 평가는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의 일환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중성자극물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기사를 의미한다.

표 2. 각 집단별 자극평가결과 변량분석('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n = 307)

	통제집단 (n = 68)	'책임' 프레임 (n = 58)	'갈등' 프레임 (n = 63)	'인간적흥미' 프레임 (n = 58)	'도덕성' 프레임 (n = 60)	F	p
이해도	5.10	5.18	5.24	5.17	5.28	0.32	.73
흥미도	4.48	4.59	4.50	4.58	4.38	0.65	.52
중요도	3.27	3.29	3.17	3.16	3.19	3.01	.47
관심도	3.49	3.39	3.36	3.45	3.47	0.90	.41

주: '이해도, 흥미도, 중요도, 관심도' 문항척도;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7점).

표 3. 각 집단별 자극평가결과 변량분석('다이빙벨')

(n = 307)

	통제집단 (n = 68)	'책임' 프레임 (n = 58)	'갈등' 프레임 (n = 63)	'인간적흥미' 프레임 (n = 58)	'도덕성' 프레임 (n = 60)	F	p
이해도	5.63	6.84	5.70	5.80	5.45	1.65	.26
흥미도	4.99	5.33	5.25	5.18	5.03	1.10	.57
중요도	3.41	3.96	3.56	3.69	3.90	2.52	.30
관심도	4.26	4.18	4.17	4.09	4.37	3.92	.24

주: '이해도, 흥미도, 중요도, 관심도' 문항척도;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7점).

표 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프레임에 따른 기사 해석의 차이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F	p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97	−.06	−.11	.08	477.18	.000***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98	−.06	−.07	−.05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07	.96	−.21	.01	227.20	.000***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대립을 보도하고 있다	−.06	.97	−.15	−.08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다	.12	.06	.05	.96	300.51	.000***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09	−.13	.12	.95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10	−.18	.96	.06	140.00	.000***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계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08	−.19	.95	.11		

주: 문항척도;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7점)

***$p < .001$.

것으로 보았다. 즉,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정부가 갖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통령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를 담는다.

두 번째 요인은 ①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대립을 보도하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했다. 이는 이슈에 대해 대립적인 의견이 갈등 중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프레임이라 명명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야의 대립 혹은 정부와 시민의 갈등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의미적으로 통한다.

세 번째 요인은 ①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요인에 포함되는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얻어 이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라고 분류했다. 이는 이슈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 당사자 혹은 관계자의 개인적 스토리나 수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프레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①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② 앞의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계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등을 포함한 요인을 '도덕성' 프레임이라 했다. 이 프레임은 사건 또는 사건 관계자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집중한 기사의 관점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다음은 앞서 묶인 요인을 근거로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뉴스 프레임 유형이 조작되었는지를 검증했다. 뉴스 프레임의 조작화 평가를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뉴스 프레임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련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책임' 프레임을 이용해 조작한 기사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책임 프레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갈등'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의 기사에 노출된 집단 평균 역시 프레임과 일치하는 요인문항의 점수가 높았으며, 프레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2) 프레이밍 효과 과정: 연구 모형의 구성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이빙벨'이라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개인의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과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와 같이 모형화했다. 〈표 5〉는 다이빙벨에

대한 의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구사회적변수와 통제변수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시 통제변수를 ① 정치적 가치관 변수군, ② 이슈에 대한 사전 지식의 개인차 변수군, ③ 정치정보 습득을 위한 대중매체 이용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분석적 목표는 외생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에 해석적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고전적 여론 모형에서 주로 사용했던 변수인 '뉴스 이용' 변수가 의견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후, 해석적 프레임이 같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검증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언론에 대한 노출 또는 주목뿐만 아니라 '정치뉴스 프레임의 수용을 통해 구성되는 해석적 프레임'이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표 5. 프레이밍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

변수 기능	변수군	변수이름
외생변수	인구사회적 속성	성별 연령
통제변수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권위주의 성격
	사전 지식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	종이신문 이용 인터넷신문 이용 지상파뉴스 이용 종편뉴스 이용 보도전문채널 이용 정치 대화
독립변수	해석적 프레임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종속변수	의견과 태도	다이빙벨 기사 해석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 정부의 투입 규제에 대한 태도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1) 다이빙벨 기사해석

먼저 인구사회적 변인과 '다이빙벨 기사 해석'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표 6〉 참조).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연령이었다. 연령은 다이빙벨 기사에 대한 해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다이빙벨 기사의 '갈등' 프레임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이슈를 둘러싼 대립적 측면에 집중하고 감정적 표현에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가치관 변인 가운데 정치성향과 권위주의적 성격 모두 다이빙벨 기사에 대한 해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다이빙벨 기사를 '인간적 흥미'에 집중해서 해석했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다이빙벨 기사를 해석할 때 갈등·대립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사전 지식 가운데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을수록 다이빙벨 기사에 대해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프레임 모두를 높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사전 지식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책임·인간적 흥미·도덕성 측면은 높게 강조했다고 해석한 반면, 갈등적인 측면의 비중은 낮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다이빙벨 사전 지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투입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다이빙벨 기사해석)

변인		다이빙벨 기사 해석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인구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06	-.03	-.06	-.06
	연령	.02	.12*	-.18***	.03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05	.07	.14*	.05
	권위주의적 성격	.04	.16**	.06	.09
사전 지식	간첩조작 사건	.09	-.11	.06	-.03
	다이빙벨	.14*	-.14*	.17**	.17**
정치정보 습득	종이신문	.08	-.07	.07	.17
	인터넷신문	.03	-.03	-.05	.04
	지상파뉴스	.06	-.02	.08	-.03
	종편뉴스	.04	.01	.02	.11
	보도전문채널	.03	-.10	.03	.11
	정치 대화	.16**	.01	.13*	.04

*$p < .05$, **$p < .01$, ***$p < .001$.

넷째, 다이빙벨 기사 해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정치정보 습득(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뉴스, 종편뉴스, 보도전문채널, 정치 대화) 변인은 종편뉴스, 보도전문채널 이용과 정치대화(가족・친구・동료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뿐이었다. 가족・친구・동료와 정치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다이빙벨 기사를 정부의 책임과 인간적 흥미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해석했다.

(2)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적 속성 변인은 모든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7〉 참조). 정치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데 있어 유가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권위적 성격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다이빙벨의 사전 지식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투입 통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정치정보 습득 변인은 종편 뉴스와 보도전문채널이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많이 노출될수록 다이빙벨 투입에서 절차가 도덕적이고

표 7.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

변인		다이빙벨 투입 의견				정부 투입 통제 태도
		투입 찬성	전문가 논의 필요	유가족 의견 반영	윤리적 절차 중요	
인구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01	.05	.09	.02	−.10
	연령	.01	−.04	.01	−.03	.03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07	.16	−.08**	−.01	.15**
	권위주의적 성격	−.16**	.08	−.01	.12	.17**
사전 지식	간첩조작 사건	−.04	−.02	.03	.04	.04
	다이빙벨	.04	−.07	.15	.07	−.21***
정치정보 습득	종이신문	.01	−.17	.02	.06	−.03
	인터넷신문	−.01	.01	.07	.07	−.04
	지상파뉴스	.04	.03	−.03	−.02	.02
	종편뉴스	−.10	−.02	−.05	.19**	.06
	보도전문채널	−.08	−.06	−.04	.14*	.08
	정치 대화	.06	−.06	.06	.02	−.04

*$p < .05$, **$p < .01$, ***$p < .001$.

윤리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형성했다. 정부에 대한 태도에는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연구 가설 1의 검증

뉴스 프레임이 다이빙벨 기사에 대한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다이빙벨 기사에 대해 4개의 실험조건(뉴스 프레이밍 조건)과 통제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치된 응답자가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했다.

〈표 8〉은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에 대한 실험조건 간 평균값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사 조작으로 인해 형성된 해석적 프레임에 따라 '다이빙벨에 관련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① 앞의 기사가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지, ② 다이빙벨을

표 8.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에 대한 기사내용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해석적 프레임				통제집단	*F* 값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1)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6.03 [a]	1.48	3.37	1.53	2.21	487.56***
(2)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싸고 갈등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22	5.63	2.74	2.19	3.44	147.90***
(4)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을 둘러싼 대립에 비중을 두고 있다						
(5)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강조하고 있다	2.75	1.49	5.66	2.92	2.38	191.08***
(6)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간적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						
(7)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2.04	1.52	2.80	6.28	2.40	282.70***
(8) 앞의 기사는 다이빙벨 투입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평균 값(전혀 그렇지 않다 = 1 ~ 매우 그렇다 = 7).
$^{*}p < .05$, $^{**}p < .01$, $^{***}p < .001$.

투입하는 데 대통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면, '책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접한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에 가깝다고 해석한 반면, '갈등'과 '도덕성' 프레임을 접한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깝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F(4) = 487.56,\ p < .001$〕.

다음으로 ① 앞의 기사가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싸고 갈등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지, ② 다이빙벨을 둘러싼 대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갈등' 해석적 프레임 집단이 그렇다고 해석한 반면, 나머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를 주었다〔$F(4) = 147.90,\ p < .001$〕.

또한 ① 앞의 기사가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강조하고 있는지, ②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간적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렇다는 해석을 했고 나머지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F(4) = 191.09,\ p < .001$〕.

마지막으로 ① 앞의 기사가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덕적 절차를 강조하는지, 다이빙벨 투입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덕성'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집단에서 '매우 그렇다'에 가깝게 해석했다〔$F(4) = 282.70,\ p < .001$〕.

5) 연구 가설 2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또한 뉴스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 앞에서 프레임에 대한 노출이 다이빙벨을 보도한 뉴스내용에 대한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적 프레임의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으므로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를 응답자의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로 대치했다. 그러나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는 프레임에 대한 노출과 응답자의 의견형성 및 변화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절차적 지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외생변인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적으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으로 인구사회적 속성, 정치적 가치관,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단계적으로 예측변인 블록을 회귀방정식에 투입했을 때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미한지를 살폈다.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은 크게 네 가지, 즉 ① 투입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 ②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

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③ 투입 결정에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④ 투입 과정에서 도덕적인 절차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으로 구분했다(〈표 9〉~〈표 12〉).

첫째, 다이빙벨 투입을 찬성하는 정도에 미친 영향을 측정했다(〈표 9〉 참조).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성향과 권위주의적 성격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 해석적 프레임 등의 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유의하게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식 변수는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해석적 프레임이 투입되기 전(모형 4)까지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다가, 해석적 프레임 변수들이 포함되면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해석적 프레임과 함께 다이빙벨 투입 찬성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데 경합함을 나타낸다. 정치정보 습득 변수는 종편뉴스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 빈도가 높을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반대했

표 9.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투입찬반)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변인		다이빙벨 투입 의견(투입찬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인구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05	-.02	-.02	-.03	-.02
	연령	.09	.07	.03	.02	.01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10***	-.07***	-.05***	-.04*
	권위주의		-.14***	-.13***	-.11***	-.12*
사전 지식	간첩조작사건			-.09	-.06	-.06
	다이빙벨			-.07*	-.06*	-.05
정치정보 습득	종이신문				.11	.12
	인터넷신문				-.01	-.01
	지상파뉴스				.04	.04
	종편뉴스				-.08**	-.05*
	보도전문채널				-.04	-.02
	정치 대화				.09**	.08*
해석적 프레임	책임					.29***
	갈등					-.13
	인간적 흥미					.29***
	도덕성					-.41***
수정된 R^2		.01	.06***	.08***	.10***	.15***
$\triangle R^2$($\triangle R^2$ 유의도)		.01	.06***	.02	.02***	.05***

$^{\#}p < .1$, $^{*}p < .05$, $^{**}p < .01$, $^{***}p < .001$.

으며 지인과의 정치대화가 빈번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 찬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책임' 해석 프레임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beta = .29$, $p < .001$), '인간적 흥미' 해석 프레임($\beta = .29$, $p < .001$), '도덕성' 해석 프레임($\beta = -.41$, $p < .001$)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이나 정치정보 습득경로 변수의 영향력도 적지 않았지만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해석적 프레임 변수들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찬반의견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triangle R^2 = .05$, $p < .001$).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정치보도 프레임에 의해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도된 '책임'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들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찬성했다. 개인의 슬픔, 억울함 등 인간적 감정을 강조하도록 유도된 '인간적 흥미'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들 역시 투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졌다. 반면 절차, 과정 등에서의 도덕성에 비중을 두도록 '도덕성' 해석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는 다이빙벨 투입을 반대했다.

표 10.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전문가논의)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변인		다이빙벨 투입 의견(전문가논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인구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09	-.07	-.07	-.06	-.02
	연령	-.06	-.05	-.05	-.03	-.01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20***	.18***	.18***	.14**
	권위주의		.04	.03	.02	.08
사전 지식	간첩조작사건			-.03	-.01	-.01
	다이빙벨			.01	.01	.03
정치 정보 습득	종이신문				.14**	.14*
	인터넷신문				.01	.01
	지상파뉴스				.07	.06
	종편뉴스				-.01	-.01
	보도전문채널				-.06	-.05
	정치 대화				.10*	.09*
해석적 프레임	책임					-.28***
	갈등					.15**
	인간적 흥미					-.24***
	도덕성					-.08
수정된 R^2		.01	.03***	.04***	.07***	.12***
$\triangle R^2$ ($\triangle R^2$ 유의도)		.01	.03***	.01	.03***	.04***

#$p < .1$, *$p < .05$, **$p < .01$, ***$p < .001$.

둘째,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하는 데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친 영향을 측정했다(〈표 10〉 참조).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전 지식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가치관 설명변수 중에서 정치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다이빙벨 투입에 전문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 해석적 프레임 등의 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유의하게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보 습득 변수들은 종이신문을 통한 정치정보 습득률이 높을수록 전문가 논의를 강조했으며,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전문가 논의의 필요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해석적 프레임이 전문가 논의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책임' 해석프레임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beta = .-28$, $p < .001$), '갈등' 해석 프레임($\beta = .15$, $p < .001$), '인간적 흥미' 해석 프레임($\beta = -.24$, $p < .001$)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정치정보 습득경로 변수의 영향력도 적지 않았

표 11.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유가족 입장 반영)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변인		다이빙벨 투입 의견(유가족입장반영)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인구 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15**	-.13**	-.10*	-.08*	-.06*
	연령	.14*	.11*	.10*	.15*	.13*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11*	-.08*	-.08*	-.08
	권위주의		-.02*	-.01*	-.01*	-.04
사전 지식	간첩조작사건			.02	.01	.01
	다이빙벨			.10*	.09*	.08*
정치 정보 습득	종이신문				.04	.02
	인터넷신문				.10	.11
	지상파뉴스				-.07	-.06
	종편뉴스				-.08	-.05
	보도전문채널				-.02	-.02
	정치 대화				-.06**	-.05*
해석적 프레임	책임					.07*
	갈등					-.04*
	인간적 흥미					.38***
	도덕성					.01
수정된 R^2		.02***	.03***	.04***	.07***	.13***
$\triangle R^2$($\triangle R^2$ 유의도)		.02***	.01	.01*	.03***	.05***

$^{\#}p < .1$, $^{*}p < .05$, $^{**}p < .01$, $^{***}p < .001$.

지만 이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해석적 프레임 변수가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찬반의견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triangle R^2 = .04$, $p < .001$).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정치보도 프레임에 의해 '책임'과 '인간적 흥미'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들은 다이빙벨 투입에 전문가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갈등과 대립 구도를 강조한 '갈등'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는 전문가 논의가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셋째,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하는 데 유가족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표 11〉 참조).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경우 성별이 유가족 입장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형성했다($\beta = -.06$, $p < .05$). 반대로 연령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가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5$). 정치성향과 권위주의적 성격 변수는 해석적 프레임이 투입되기 전(모형 4)까지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다가 해석적 프레임 변수들이 포함되면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

표 12.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도덕적 절차 준수)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변인		다이빙벨 투입 의견(도덕적 절차 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인구 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07#	.08	.06	.05	.02
	연령	−.05	−.08	−.04	−.03	−.02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06	−.05	−.02	−.02
	권위주의		.11**	.11**	.10**	.07*
사전 지식	간첩조작사건			.09	.06	.05
	다이빙벨			.09*	.07*	.06
정치 정보 습득	종이신문				−.14**	−.09*
	인터넷신문				.07#	.06#
	지상파뉴스				−.10*	−.02
	종편뉴스				.20***	.13**
	보도전문채널				.09*	.03*
	정치 대화				−.03	−.02
해석적 프레임	책임					−.13*
	갈등					−.15*
	인간적 흥미					−.06
	도덕성					.50*
수정된 R^2		.02*	.04***	.06***	.11***	.14***
$\triangle R^2$ ($\triangle R^2$ 유의도)		.01*	.02**	.02*	.05***	.02***

#$p < .1$, *$p < .05$, **$p < .01$, ***$p < .001$.

는 유가족 목소리 반영 의견을 설명하는 데 정치적 가치관 변수가 해석적 프레임과 함께 경합함을 알 수 있다. 사전 지식 변수 중에서는 다이빙벨에 대해 기존에 잘 아는 수용자일수록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β = .08, $p < .05$). 정치정보 습득경로 중에는 지인과의 정치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5, $p < .05$).

위의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해석적 프레임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책임'(β = .07, $p < .05$)과 '인간적 흥미'(β = .38, $p < .001$) 해석적 프레임은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β = -.04, $p < .05$)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할수록 유가족의 목소리가 다이빙벨 투입 결정에 반영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이빙벨 투입 결정에 절차와 과정의 도덕적 ·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속변수로 해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했다(〈표 12〉 참조).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는 남성일수록 도덕적 절차 준수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β = .07, $p < .1$).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정치적 가치관,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 등의 변수가 투입된 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가치관 변수 중에는 권위주의성격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β = .07, $p < .05$). 권위주의성격이 강할수록 도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형성했다.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 변수는 해석적 프레임을 투입하기 전(모형 4)까지는 유의한 효과를 미쳤지만(β = .07, $p < .05$), 해석적 프레임 변수들이 포함된 후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정치정보 습득 변수 중에는 종이신문(β = -.09, $p < .05$), 인터넷신문(β = .06, $p < .1$), 종편뉴스(β = .13, $p < .01$), 보도전문채널(β = .03, $p < .05$)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종이신문을 통한 정치정보 습득이 많을수록 도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인터넷신문, 종편뉴스,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서 도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변수를 통제한 후에 해석적 프레임이 도덕적 절차 준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책임'과 '갈등'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할수록 도덕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졌고 반대로 '도덕성' 해석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는 절차의 도덕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형성했다.

6) 연구 가설 3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뉴스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표 13〉). 독립변인을 단계적으로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폈다.

첫째, 인구사회적 속성변인들을 투입했다. 분석결과 성별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남성일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었다($\beta = .07$, $p < .1$). 연령은 다른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모형 1) 유의미했다.

둘째, 인구사회적 속성변인을 통제한 후 정치적 가치관 블록의 변인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정치성향($\beta = .18$, $p < .001$)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격($\beta = .10$, $p < .001$)이 강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졌다. 정치적 가치관 변수는 해석적 프레임 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표 13. 해석적 프레임이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변인		정부에 대한 태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인구 사회적 속성	성별(남성)	.14**	.12*	.14**	.09*	.07#
	연령	.08#	.07	.06	.01	.01
정치적 가치관	정치성향		.18***	.18***	.19***	.18***
	권위주의		.18***	.16**	.17***	.10**
사전 지식	간첩조작사건			.10	.08	.07
	다이빙벨			-.15**	-.13**	-.13**
정치 정보 습득	종이신문				-.06	-.04
	인터넷신문				-.03	-.02
	지상파뉴스				.07	.06
	종편뉴스				.07	.05
	보도전문채널				.08	.07
	정치 대화				-.04**	-.03**
해석적 프레임	책임					-.25***
	갈등					-.11
	인간적 흥미					-.18
	도덕성					.27
수정된 R^2		.02**	.09***	.11***	.12***	.17***
$\triangle R^2$($\triangle R^2$ 유의도)		.02**	.07***	.02**	.01**	.05***

#$p < .1$, *$p < .05$, **$p < .01$, ***$p < .001$.

셋째, 인구사회적 속성과 정치적 가치관을 통제한 후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다이빙벨(β = -. 13, $p < .01$)에 대한 관심이 평소 많을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적 속성과 정치적 가치관, 사전 지식을 통제한 후 정치정보 습득 블록의 변인을 하나씩 투입했을 때에는 정치대화(β = -. 03, $p < .01$)만이 정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구・동료와의 정치대화가 잦을수록 정부의 투입 통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선행독립변인 블록(인구사회적 속성, 정치적 가치관,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을 통제한 후 이 연구가 고려한 변인인 해석적 프레임을 투입했다. 그 결과 종속변인이 다이빙벨에 대한 의견일 때와는 다르게 '책임'(β = -. 25, $p < .001$) 해석적 프레임일 경우에만 정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했다. 다시 말해,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형성한 수용자일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해석적 프레임 변인은 수용자가 정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의 종속변인들과는 달리, 연구 가설 3의 종속변인인 '정부에 대한 태도'는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보다 수용자의 정치적 가치관과 사전 지식 그리고 정치적 관심도, 정치정보 습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치뉴스 프레임의 변화가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뉴스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 프레임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시된 '내러티브 해석모형'(the narrative interpretation model of framing effects)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는 정치 기사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뉴스수용자의 다이빙벨 기사에 대한 해석과 다이빙벨 투입 의견 및 정부의 다이빙벨 투입 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4개의 뉴스 프레임은 갈등적 이슈에 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책임', '갈등', '인간적 흥미', '도덕성' 뉴스 프레임을 사용했다. 기존의 수많은 프레임 효과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도 1차 프레임 효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언론이 '책임' 프레임을 강조할수록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정부의 책임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했다. '갈등'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는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대립적 입장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적 흥미' 프레임 집단은 간첩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억울함이나 개인의 감정에 주목해서 기사를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프레임을 강조할수록 수용자는 유우성 씨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해석했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주로 뉴스 프레임의 수용을 통해 특정 이슈를 해석하고 갈등 사안에 대해 의견을 형성한다고 가정되는 기존 프레임 연구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내러티브 해석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있다. 서울 소재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결과적으로 다이빙벨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읽은 뉴스수용자라 할지라도 노출된 정치 기사의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다이빙벨 기사를 해석하는 방향과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의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다이빙벨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읽은 뉴스수용자라 할지라도 앞서 노출된 정치 기사의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다이빙벨 투입 기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책임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형성한 수용자는 다이빙벨 투입 기사가 정부의 책임과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이해했다. 갈등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형성한 수용자는 동일한 다이빙벨 기사가 찬반대립과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을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노출되었던 수용자는 다이빙벨 기사를 유가족의 분노, 슬픔 등의 개인적 감정 위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도덕성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가진 수용자들은 다이빙벨 기사를 투입 과정과 절차의 도덕적·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맞춰 해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뉴스 프레임에 노출되면 수용자가 그와 조응하는 방향으로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해 전혀 다른 기사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수용자가 형성한 해석적 프레임이 기사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 실제 과학기술을 둘러싼 갈등 이슈인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했다.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은 크게 네 가지, 즉 투입에 대한 찬반의견, 투입에 전문가 논의의 중요도, 유가족 의견의 반영 정도 그리고 도덕적 절차 준수에 대한 의견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측정했다. 연구 가설 1에서 프레임에 대한 노출이 다이빙벨 기사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적 프레임의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으므로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를 응답자의 무선배치로 대치했다. 그러나 해석적 프레임이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가설 2를 검증하는 데는 프레임에 대한 노출과 응답자의 의견형성 및 변화 사이에 모든 외생변인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인구사회적 속성, 정치적 가치관,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 등을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다이빙벨 투입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는 정치성향과 정치정보 습득경로, 해석적 프레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다이빙벨 투입을 반대했다. 종편뉴스를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할수록 투입에 반대했으며 주변사람과의 정치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다이빙벨 투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석적 프레임의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 프레임과 당사자의 개인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형성할 때 다이빙벨 투입에 찬성했다. 반면 윤리적 측면에 집중한 '도덕성' 해석 프레임을 형성할 경우, 다이빙벨 투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종이신문과 주변인과의 정치대화를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할수록 찬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책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형성할 경우 중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형성하는 반면, '갈등' 해석적 프레임의 경우에는 전문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찬성했고 주변사람과의 정치대화가 빈번할수록 유가족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책임'과 '인간적 흥미' 해석적 프레임은 유가족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고 '갈등'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인터넷신문과 종편뉴스, 보도전문채널에 많이 노출될수록 도덕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종이신문을 통해 정치정보를 많이 습득할수록 덜 중요하게 여겼다. '책임'과 '갈등'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할 경우, 도덕적 절차는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의견을 형성한 반면, '도덕성' 프레임을 형성한 수용자는 도덕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형성되는 의견이 해석적 프레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성의 확인은 해석적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연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인구사회적 속성변인 분석결과 남성일수록 정부

가 다이빙벨을 통제하는 것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정치적 가치관 변인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치성향은 보수적일수록, 권위주의 성격은 강할수록 정부에 통제 정책에 우호적 태도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이빙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정보 습득 변인들 중에는 정치대화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친구・동료와 정치대화를 평소 많이 하는 응답자일수록 정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선행독립변인 블록을 통제한 후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한 변수인 해석적 프레임을 투입한 결과, '책임' 프레임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형성할 때만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뉴스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보다 기존에 가진 수용자의 정치적 가치관과 사전 지식, 정치정보 습득경로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이빙벨 기사에 대한 해석과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의견은 중성적 실험자극(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험처치(정치보도 프레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벨 투입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태도는 실험처치물의 영향보다 수용자의 정치성향, 권위주의적 성격, 정치정보 습득경로 등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몇 가지 이론적 공헌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치보도의 뉴스 프레임이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기사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에 대한 접촉과 노출을 중심으로 여론변화를 설명했던 기존의 고전적 여론 모형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즉, 내러티브 해석모형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적 갈등 이슈에 대한 여론변화가 단순히 과학기사 프레임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에 수용자의 인식 가운데 형성되었던 해석적 프레임의 차이에 의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 자체가 언론의 보도 방식, 즉 프레임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프레이밍 연구 결과들(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과 결합해서 갈등적 이슈에 대한 여론형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기사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에서 논의한다면, 특정한 프레임을 강조한 뉴스가 수용자의 지식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동일한 기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 이슈에 대한 의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으로 논쟁

이 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의견형성, 분화 및 변화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뉴스와 공중의 이해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뉴스 프레이밍 효과와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이라는 두 과정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여론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원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 갈등하는 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의 본질이 이면적으로는 언론과 시민 각각이 함께 참여하는 현실에 대한 해석적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언론이 여론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에서 설명한다면, 기존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밝혀냈던 뉴스내용이 강조하는 개념을 수용자가 즉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점화효과'와는 약간 다르다고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하는 사회 세력이 정치적으로 충돌을 빚을 경우, 언론 보도의 양과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접촉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거나 변화한다고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론변화를 단순하게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변수와 정치심리적 개인차 그리고 그에 따른 언론에 대한 접촉 및 주목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는 단순함을 극복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과학기술 이슈를 보도하면 뉴스수용자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프레임의 영향을 1차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프레임을 포함한 기사를 해석할 때는 평소 자신이 자주 노출되었던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과학기술 이슈를 다룰 때 언론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기사를 작성해도 언론이 평소 정치이슈를 보도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특정한 뉴스 프레임을 강조해서 전달했다면, 수용자는 특정한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과학기술 기사를 해석하기 어려워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달된 뉴스 프레임은 다른 사건에 대한 뉴스수용자의 이해 방식과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론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검증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언론은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 바로 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수행되는 방식이 바로 프레이밍, 즉 개인이 갈등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슈를 해석하고 의견을 형성해야 할 과학기술에 대한 여론형성에 정치보도

의 프레이밍 효과와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언론의 프레이밍과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할 과학기술 이슈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이념적 갈등과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보도 방식과 합리적인 정책 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제언

이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과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갈등이슈에 대한 기사를 해석하고 의견을 형성할 때 기존에 가진 해석적 프레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내러티브 해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하므로 국가, 권위, 질서, 도덕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보다는 개인, 자유, 다양성 등과 관련된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권위주의적 성격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일반인을 포함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더욱 타당성 있는 실증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처치에서의 기간 문제다. 프레이밍 효과와 내러티브 해석모형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실험 방법이 아닌 장기적인 노출 실험이 요구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프레임으로 조작된 정치 기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전달한 다음, 과학기술 보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지 등을 파악할 때 설명력이 강화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갈등이슈로 세월호참사에서의 다이빙벨 투입을 선정했다. 그러나 다이빙벨 투입은 과학기술적 논란 이외에도 그것을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상영여부를 두고도 격렬한 충돌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정치 보도 프레임이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과학기술 이슈가 보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순수한 사안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해석적 프레임이 과학기술 이슈에 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성애 · 이종혁 (2011).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 스키마 일치가 프레이밍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103-127.

김춘식 · 이영화 (2008).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뉴스 프레임 연구: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03-327.

박희제 (2011). 과학기사 속의 과학자와 과학의 정치화. 〈담론 201〉, 14권 2호, 27-51.

송해룡 · 김원제 · 조항민 (2005).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105-128.

이준웅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호, 100-135.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가을 29호, 85-153.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 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이준웅 (2009).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권 5호, 175-176.

Baumeister, R. F., & Newman, L. S. (1994). How stories make sense of personal experiences: Motives that shape autobiographical narra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0*, 676-690.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anl of Communication*, *41*(1), 6-38.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Gamson, W. A. (1988). A constructionist approach to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Symbolic Interaction*, *11*, 161-174.

Gamson, W. A., & Modigliani, A.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Richard G. Braungart (Ed.),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3*, Greenwich, CT: JAI.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76). *Bad news*. London: Routledge.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NY: Harper & Row.

Graber, D. A. (1988).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2nd ed.), New York, NY: Longman.

Graesser, A. C., & Ottati, V. (1995). Why stories? Some evidence, questions and challenges. In R. S. Wyer Jr. (Ed.), *Knowledge and memory*: *The real story*. Hillsdale, NJ: Erlbaum. 121-132.

Iyengar, S. (1989). How citizens think about national issues: A matter of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878-900.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Page, B. I., & Shapiro, R. T.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the communication sciences* (pp. 173-212). Greenwich, CT: Ablex.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00-569.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최초 투고일 2016년 2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3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6년 3월 30일

News Frames, Audiences' Frames, and Framing Effects on Opinion:

Testing the Narrative Interpretive Model of 'Diving-Bell' Issue During the Sewol Ferry Disaster

Changyoung Jeon
M. A.,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Chunsik Kim
Professor,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political news frames moderate the effect of audiences' interpretation on opinion of scientific issue, 'Diving Bell'. This paper tests three hypotheses by using an experimental method in which 307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ccept H1 and H2. Firstly, audiences who form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narrative frame interpret that the news emphasiz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end to be in favor of 'Diving-bell' input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Secondly, users who apply 'conflict' narrative frame interpret that the news underline people's conflict and opposition. Moreover, they assert that the discussion of experts about 'Diving-Bell' input should be respected by the government. Thirdly, people who activate 'human-interest' narrative frame tend to interpret toward feeling-oriented response, such as anger and grief of the bereaved. In addition, they also consider that the opinion of the bereaved must be reflect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about 'Diving-Bell' input. Audiences who get 'morality' narrative frame interpret the news focusing on the procedure of 'Diving-Bell' input. They stress that the determination of 'Diving-Bell' input has no moral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offers som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provide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Keywords: news frame, interpretive frame, narrative interpretive model, Sewol Ferry Disaster, Diving-bell